

5. 노리개와 패물(佩物)

[1] 노리개

노리개는 여성의 몸 치장으로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등에 다는 패물의 하나인데,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강조해 주는 것으로 궁중과 상류층은 물론 평민들도 애용하였다. 노리개의 구성은 단작(單作) 또는 삼작(三作)으로 되어 있는데 띠돈, 끝목, 패물, 매듭, 술 등 5가지로 되어 있다.

노리개의 용도는 예복용과 평복용으로 구분되며 크기에 따라 어른용과 어린이용이 있다. 민간에서는 주로 은삼작 노리개를 달았는데 혼례때에 패용하고 백지에 싸고 또 비단보에 싸서 보물상자에 간직에 두었다가 친척의 혼례 때에나 꺼내서 패용하였다. 노리개의 종류로는 삼작 노리개·호리병 삼작·트허 심작·금사 향갑·북향·바늘겨레·염낭·귀주머니·장도·괴불 등이 있다.

(1) 삼작 노리개

밀화(密花)·산호·옥·금·은 등으로 만든 3개의 노리개를 황색·적색·남색의 3가닥 진사(眞絲) 끈에 색을 맞추어 단 것으로 웃고름·안고름·허리띠 등에 매단다. 크기와 화려한 정도에 따라 대삼작·중삼작·소삼작으로 나뉜다.

(2) 호리병 삼작

나비 모양의 띠돈 밑에다 호리병을 단 삼작 노리개를 말한다. 호리병이란 마치 호리병박 모양으로 가운데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장구통처럼 생긴 병인데 여기에다 술이나 약을 넣어 휴대하였다. 호리병 삼작에 다는 호리병은 아주 작게 만들어 잘록한 허리를 근목으로 엮어서 끈에 술을 달았다.

(3) 투호 삼작

은을 도금한 구리·밀화(密花)·마노·비취 등으로 투호 모양을 작게 만들어 매단 삼작 노리개이다.

투호(投壺)는 병 속에 화살을 던져 넣어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며 그 병을 투호라고 한다.

[2] 패물(佩物)

(1) 금사향(金絲香)

향(香)을 담은 갑이나 상자를 향갑이라 하고 향을 넣는 주머니를 향낭이라 한다. 금사향은 향낭의 일종인데, 은으로 두드러지게 섬세감을 하고 장방형의 집을 만든 후에 곁에 도금을 하고 그 속에 한중향(漢中香)을 넣어서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금사 향갑'이라고도 부른다.

(2) 북향

북향은 옥으로 북과 같은 모양을 만들고 앞뒤로 잘게 새긴 다음 향료를 넣어서 몸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의 일종이다. 이 북향은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후각적 쾌감과 아울러 아름답게 장식하는 시각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장신구이다.

(3) 주머니

주머니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인들이 애용하였던 장신구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은 어려서부터 왕위에 오르기 까지 항상 비단 주머니(歸囊) 차기를 좋아했다고 하며 고려시대에도 귀부인들이 비단으로 만든 향낭(香囊)을 애용하였다고 한다.

옛 풍습에 돌날에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고운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콩을 넣어 주기도 했다. 또 한해 동안의 복록(福祿)을 주머니에 담아 주는 뜻으로 정월달의 돼지날(亥日)과 쥐날(子日)이 되면 각색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손아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미풍도 있었다.

주머니 형태에 따라 두루주머니(염낭)·귀주머니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향주머니(香囊)·약주머니·수저주머니·시계주머니·주적주머니 등이 있다.

(4) 염낭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끈 2개를 양쪽에 꿰어서 여닫게 된 주머니인데, '협낭(夾囊)' 또는 '두루주머니'라고도 한다.

염낭은 돈이나 작은 패물 따위를 넣기 위한 실용성과 아울러 곱게 만들어 장식용으로도 사용 되었다.

(5) 귀주머니

네모지게 지어 아라리께로 절반을 세 끝에 접어 아래의 양쪽으로 귀가 나온 주머니를 귀주머니라고 한다.

(6) 장도(粧刀)

장도는 여인들의 호신용 칼인데 일명 비수라고도 하며, 또한 허리띠나 옷섶 안에 노리개로 차고 다니기 때문에 패도(佩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부녀자들은 위험을 당했을 때, 몸을 보호하고 심할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키는 도덕적 미덕의 상징으로 장도를 지니고 다녔다. 고려 시대의 장도는 장식이 매우 화려하고 예술성이 높았다고 하며 조선시대의 장도는 대부분 세공(細工) 조각장들이 제작하였는데, 지금의 서울 광고 부근에 장도를 만드는 세공방(細工房)이 많았다고 한다.

장도의 전체 길이는 5치, 칼의 길이는 1.5치였고 여자용은 이보다 작은 것이 더 많았다. 장식은 대칭적이며 고리가 달리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7) 괴불

괴불은 어린 아이의 노리개인데, '괴불 주머니'라고도 한다.

네모진 색 형꺽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솜을 통통하게 넣고 가에 수를 놓아 색 끈을 접어서 단다.